

인류공생의 시대를 향한 건설의 고동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20년 1월 26일

기후변화 문제에 맞선 글로벌연대의 확대를

참가학회 창립 90주년과 SGI(국제참가학회) 발족 45주년을 기념해 누구나 안심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할 방안을 몇가지 제언합니다.

먼저 연초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을 둘러싼 정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서로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제법 준수와 외교활동이라는 노력을 통해 사태의 악화를 어떻게든 막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의 중재하에 긴장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럽과 인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는 등 각지에서 맹렬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발생하고, 호주에서는 대규모 삼림화재의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진행되면 더욱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9월 유엔이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가맹국 3분의 1에 해당하는 65개국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방침을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장래 세대에 미칠 위협이라는 의미에서 핵무기 문제처럼 '인류의 명운을 거머쥔 근본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하듯 '우리 시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곤이나 기아 근절을 비롯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토대

부터 무너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악순환에 제동을 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누구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이 지금까지 없던 국제적인 행동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성패에 ‘우리 시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전후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대변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넓혀지고, 더불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과 기업들이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함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한 ‘파리협정’¹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진 활동을 축으로 기후변화에 맞서는 연대를 넓히면서 SDGs의 모든 분야를 진척시키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데 창설 75주년을 맞는 유엔의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글로벌한 행동 연대를 견고히 구축하는 데 필요한 관점에 관해 3가지 각도에서 논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물 위기에 직면

첫째 기동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재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상이변의 영향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태풍 15호 파사이와 태풍 19호 하기비스가 각지를 맹렬히 덮쳐 대규모 침수피해와 정전, 단수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향으로 염려되는 점은 유엔이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처럼, 그 영향이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비롯해 여성, 어린이, 고령자에게 더

1 파리협정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개최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국제협정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로 한다. 196개국·지역이 참여해 각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유엔에 실시상황을 보고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욱 강하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상이변의 피해를 면하기 어렵고, 생활의 재정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비극은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태평양 도서국 사람들이 맞닥뜨린 위기는 심각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수몰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난에 그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2년 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도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와 관계성’은 각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토지의 상실은 자신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섬 등으로 이주해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해도 자신이 이전에 살던 섬에서 얻은 ‘존재론적 안전감’을 상실한 채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렇듯 치유하기 힘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토지와 관계성’을 상실한 슬픔은 지진이나 해일과 같이 피하기 어려운 거대한 재해로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 슬픔은 가족이나 지인을 갑자기 떠나 보낸 괴로움이고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저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이듬해(2012년)에 발표한 제언에서 그 깊은 슬픔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정이 결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떡갈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는 없다.’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함축적인 말을 인용해 자신이 살아온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나 생활의 숨결이 담긴 집을 잃는 가슴 아픈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데이터로 나타내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이 떠안은 고통’에 눈길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기축으로 삼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사람 한사람이 맞닥뜨린 딱한 상황이 거시적인 데이터 뒤에 가려져 버리는 구조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마찰 문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국 경제를 살리려고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근린공핍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화로 상호의존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그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국공핍화’ 상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마찰은 많은 중소기업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끼쳐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수지와 같은 경제지표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자국민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세계에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심각한 위협에 맞닥뜨린 곳을 방문해 거기서 만난 사람들 즉 남태평양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이나, 학교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중동의 젊은 난민, 아프리카에서 생활 재건에 힘쓰는 에볼라 출혈열 생존자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경중 올린 타인 고려하지 않는 경쟁의 폐해

고뇌에 잠긴 사람 홀로 두지 않는

석존이 관철한 ‘동고’ 정신

“수많은 사람이 짓밟히고 앞길이 막혀 내버려지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국제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생활 그리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눈을 돌려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지리학’에서 제기한 문제

기후변화도 무역마찰도 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렇듯 오래 되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찰할 때는 우리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이 20세기 초에 쓴 ‘인생지리학’에서 제시한 관점이 떠오릅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무력을 행사하는 전쟁이 ‘임시적’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 경제적 경쟁은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논했습니다.

“그것(무력에 의한 전쟁)은 갑작스러운 참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경과하는 데 반해, 이것(경제적 경쟁)은 점차 완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경과한다.”

마키구치 회장은 “전쟁의 잔혹함은 명백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 교섭이나 중재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지만, 경제적 경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제적 경쟁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도태하는 형태를 띠고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되고 만다. 따라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해도 자주 간과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세계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타국을 희생시켜 자국의 번영을 이루려는 풍조가 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조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거나,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뿌리내릴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약육강식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결국 비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훨씬 심해진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제화가 진행된 21세기 세계에서 그 위험성은 훨씬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마키구치 회장은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쟁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차탁마해야 새로운 활력과 창조성을 풍부하게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계를 생존경쟁의 무대로만 여겨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려고 계속 행동하고 그 결과에 무관심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마키구치 회장이 주장한 사상의 기반에는 세계가 ‘공동생활’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인생지리학’ 서론에서 그 세계관의 핵심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 질이 나쁜 탈지분유를 먹여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 의사가 권유한 스위스산 유제품을 겨우 구입해 먹였다. 스위스 쥐라지방의 산기슭에서 일하는 목동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또 아기가 입고 있는 솜옷을 보니 인도에서 불별더위 아래서 목화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범한 갓난아기라 해도 그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만난 적도 없는 세계 사람들에게 한없이 감사해 하듯, 마키구치 회장은 ‘공동생활’이라는 말을 이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간과하기 쉬운 세계의 현실(실상)이라고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는 본디 많은 사람의 활동이 서로 어우러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상이 방향성을 잃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위협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순 속에서 괴로워하

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자세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마키구치 회장의 안목이었습니다.

경제발전과 온난화 방지도 양립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3퍼센트를 넘었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후 유감스럽게도 배출량은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는데,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방법을 의욕적으로 선택하면서 경제와 사회가 취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심각한 위협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공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빈곤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한 경제학자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나란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교수는 저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극빈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빈자가 부자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나 의료제도와 같이 ‘수많은 편의시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시스템 속에 완전히 녹아 있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뿐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에 관해 “덜 가난한 사람에 비해 훨씬 위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불운이 닥쳐도 그 충격은 더 크다.”고 하면서 틀에 박힌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불행의 늪에서 함께 빠져나오다

사람을 대할 때 계층이나 집단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신봉하는 불법(佛法)에서도 강조하는 점입니다.

석존의 말 중에 “형체가 있는 생물 사이에는 각각 구별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다만 명칭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인간에게는 본디 구별이 없는데 사회가 만든 분류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석존은 중병을 앓는 사람을 직접 간호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거기에 상대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구별은 없었습니다.

그 대상은 지나가다 마주친 수도승부터 일찍이 석존의 목숨을 노린 적이 있는 아사세왕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도승이 동료들에게 버림받아 홀로 병상에 누워 있던 것처럼, 아사세왕도 심각한 난치병에 걸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석존은 수도승의 더러워진 몸을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또한 석존은 자신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사세왕을 만나 법(法)을 설해 병이 낫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석존의 이러한 행동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 ‘어려움을 혼자 떠안게 하지 않는다’는 불법의 ‘동고(同苦)’ 정신의 원류를 보는 듯합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약자’도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비록 ‘약자’ 상태에 놓여도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의 유대가 넓혀지면 상황을 호전시키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빈곤이나 병에 직면해도 주변의 도움이 있으면 삶을 실감하는 정도가 크게 바뀌는 것이 불법 사상의 핵심입니다.

마키구치 회장이 말한 ‘공동생활’에 의식적으로 동참하는 삶의 자세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행동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세계를 크게 뒤흔들었을 때, 유엔 사무차장 등을 역임한 안와를 초두리 박사와 나눈 대담에서 주목한 점도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초두리 박사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극단적인 금융팝박이나 가격변동과 같은 외적 충격을 완화할 국제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21세기의 유엔이 강력히 해야 할 역할은 ‘약자 편에 서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초두리 박사는 유엔이 2001년에 신설한 ‘유엔 최빈국·내륙국 고위대표실(UNOHRLLS)’의 초대 고위대표

로 취임해 국제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국가의 사람들을 돕고자 행동한 분입니다.

박사가 ‘취약한 나라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가장 기뻐다.’고 한 말에 저는 깊이 감명하고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가학회도 초창기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야유를 받은 역사가 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불행의 늪에서 함께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웃음을 당해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고 신념에 찬 행동을 관철하신 분이 마키구치 회장과 함께 창가학회의 민중운동을 일으켜 세운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제2대 회장입니다.

함마르셀드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에 의탁한 생각

도다 회장의 간절한 바람은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나라의 민중이 전화에 휩쓸리고 도탄에 빠진 비극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신념입니다.

그만큼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 창설된 유엔에 한없는 기대를 보내고 ‘전 세계 희망의 보루’로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60년 전에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세계평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첫걸음으로서 미국에 가서 유엔본부를 방문한 까닭도 스승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유엔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인 활동의 큰 기둥으로 삼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비정부 기구(NGO)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지구적인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유엔의 역사를 보면 제가 1960년에 뉴욕을 방문한 직후인 10월 24일 유엔의 날에 당시 다그 함마르셀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전 악장을 유엔본부에서 연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엔에서 ‘제9번’을 연주할 때는 통상 마지막 제4악장만 연주하는데 유엔의 날 15주년을 기념해 전 악장을 연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마르셀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향곡 제9번이 시작되면 우리는 격렬한 대립과 음침하고 우울한 위협으로 가득 찬 드라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우리를 그 너머로 초대해 제4악장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막바지의 통합으로 가는 가교로서 다양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다시금 들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곡의 전개를 인류의 역사에 비유하며 ‘처음 세 악장 뒤에 언젠가 제4악장이 뒤이어 나타난다는 신념을 우리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함마르셀드 사무총장의 이 신조는 마키구치 회장이 ‘인생지리학’에서 제시한 시대 전망과 공명합니다.

20세기 초에 마키구치 회장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군사적 경쟁’이나 ‘정치적 경쟁’ 그리고 ‘경제적 경쟁’은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9번’ 제4악장의 합창이 ‘오, 벗이여! 이런 곡조는 아니오’ 하고 시작되듯이 기존의 경쟁 방식을 바꿔버리는 접근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그 골격을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이롭게 하며 자신도 이익을 얻는다’는 이념에 바탕을 둔 인도적 경쟁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맞서는 국제적인 행동의 연대를 넓힘으로써 인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패러다임 시프트(기본축의 전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선율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주선율을 모든 장소에서 힘차게 울릴 때 비로소 미증유의 위기인 기후변화라는 시대 조류도 바꿀 기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1월부터 파리협정 이행 시작

다음 둘째 기둥으로 제기하는 의제는 위기감의 공유뿐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을 함께 일으켜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종은 1980년대부터 울리기 시작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1992년 5월이었습니다.

그 뒤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교토의정서’를 1997년에 채택하였고,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도 포함한 방안으로 ‘파리협정’을 합의한 때는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구조가 성립한 배경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쌓아온 과학적 증거를 통해 온난화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기상이변이 각지에서 잇따라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나타나 위기감이 더해진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1월부터 ‘파리협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앞길에는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IPCC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30년에 세계 평균기온은 ‘파리협정’이 억제하려고 한 ‘1.5도 상승폭’을 돌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이 즉시 대처를 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화경이 설하는 국토변혁의 드라마 자기 발밑에서 희망 밝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려면 위기감 공유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복돋는 연대의 결집 촉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직접 미치지 않는 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그 규모의 크기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볼딩 박사의 문제 제기

이 점에 관해 과제의 분야는 다르지만 평화학자 엘리스 볼딩 박사와 회담 중, 박사가 제게 소개해 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박사가 1960년대에 군축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만약 완전한 군축을 달성한다면 어떠한 세계가 될까요.”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우리의 일은 군축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는 ‘평화로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세력을 강력하게 결집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우리 SGI도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과 공동 제작해 2012년부터 세계 90여개 도시에서 실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전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의 비전을 폭넓게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칫하면 핵무기 문제는 인류 파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서 가능하면 직시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받아들

이기 쉽습니다.

한편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떠한 세계를 구축하면 좋을까 하는 ‘건설’에 대한 생각을 함께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긴 핵무기금지조약이 2017년에 채택된 까닭도 비인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과 더불어 핵무기 금지를 통해 구축된 세계 비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연대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지조약이 강조한 핵심은 핵무기가 초래하는 위험이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경종만은 아닙니다.

전문에 그 윤곽이 나타나 있듯이, 금지조약 정신의 바탕에는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면 인권과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과 장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을 열어, 지구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로 이어진다는 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문제에 맞서는 데도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한다는 수치목표 추구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비전을 나누면서 그 비전을 건설하기 위해 의욕적인 행동을 함께 일으키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설의 도전 속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과제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행동을 포기하는 ‘비관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 1992년에 우리 SGI가 개설한 브라질 ‘소카연구소아마존 환경연구센터’에서 열대우림 재생과 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개최한 전시에 ‘변혁의 종자’ ‘희망의 씨앗’ 같은 이름을붙인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있는 장소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에 존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변혁의 종자’가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바즉적광의 법리

위협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이 접근은 불법 사상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진수인 법화경에는 ‘사바즉적광(娑婆即寂光)’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사바’는 산스크리트어 ‘사하(감인)’를 한어로 옮긴 말로 ‘사바세계’라는 말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석존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석존이 이 통찰을 토대로 하면서도 ‘나는 스물아홉살에 선(善)을 찾아 출가했다’고 선언했듯이 그것은 염세적인 인식이 아니라 근저에는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진지한 물음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석존의 평전을 사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불타가 가르치는 핵심은 인식체계가 아니라 구제의 길’이라고 한 말은 그 본질을 꿰뚫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벗어나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인식만 앞서면 세계와의 관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자기만 괴로움에서 해방되면 된다’는 생각이나 ‘사회의 냉엄한 현실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누군가가 해결해줄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삶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존의 본의는 사바세계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적광토)를 실현하는 장소’라고 밝힌 데 있었습니다.

이 법리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것이 법화경 <견보탑품>입니다. 거기에는 석존의 설법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 다시 말해 사바세계에서 존극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보탑의 용출을 계기로 사바세계가 적광토로 바뀌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3세기 일본에 불법을 전개한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이 ‘사바즉적광’ 법리의 요체에 관해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어서 781쪽)고 설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적광토’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지도 않고,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장소를 그대로 ‘적광토’로 빛내는 행동을 펼치는 데 법화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고 설했습니다.

대성인 시대의 일본에서도 전란과 함께 지진이나 태풍 등 재해와 역병이 잇따라서 많은 민중이 고뇌에 잠겼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는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사상이나, 인간은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는 체념을 설하는 사상이 만연해 그것이 또 사람들의 살아갈 기력을 빼앗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성인은 법화경이 설한 국토를 변혁하는 드라마의 기점이 된 보탑의 출현에 관해 “견대보탑(見大寶塔)이란 우리의 일신(一身)”(어서 740쪽)이라고 말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를 비춘 보탑과 같은 존극한 빛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자각이 인간의 무한한 힘을 끌어내는 원천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탬과 같이 빛내어 사회를 희망으로 비추는 행동을 넓히면서 자기가 바라는 세계를 자기 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케냐에서 세계로 확대된 나무심기운동

이전(2005년 2월)에 케냐의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박사와 ‘자기 주변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을 밝히는 도전’에 관해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단 7그루의 묘목심기로 시작한 ‘그린벨트운동’을 되새기면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에서 미래는 생깁니다. 미래에 뭔가를 이루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소카대학교 학생들이 ‘그린벨트운동’의 애창가를 박사의 고향인 키쿠유어로 불러 환영할 때, 마타이 박사의 봄바람 같은 웃음이 한층 빛났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대지

우리의 역할은

이곳에 나무를 심는 일”

노랫소리에 맞춰 온몸으로 장단을 맞추고 함께 흥얼거리는 박사를 보고 나무심기운동이 케냐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번진 원동력이 된 ‘건설을 추진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박사와 대담한 때는 온실가스 감축의 토대를 마련한 최초의 기본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틀 뒤였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같은 역사의 연표에 새겨진 사건에 비하면 마타이 박사가 케냐에서 최초로 시작한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사가 자기 주변에서 밝힌 희망의 빛은 세월이 지날수록 공감대를 넓혀 유엔 환경계획캠페인 등 많은 나무심기운동으로 이어져 박사가 서거한 뒤에도 계속되어 현재까지 세계에서 150억 그루에 이르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의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파키스탄과 과테말라 등 많은 나라가 앞으로 함께 110억 그루 이상을 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타이 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일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을 수백만 배로도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을 추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힘을 낼지를 실감나게 호소한 말이 아닐까요.

SGI가 개최한 ‘희망의 씨앗’전에서는 마타이 박사를 비롯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미래학자 헤이젤 헨더슨 박사 등 자기 주변에서 행동의 유대를 넓힌 사람들의 도전을 소개했습니다.

마타이 박사가 행동을 시작한 계기는 고향의 상징물로 아낀 무화과나무가 경제개발 여파로 벌채된 사실을 알게 된 데 있습니다.

2030년 향해 SDGs 힘쓰는 ‘행동 10년’을 청년이 추진

인간 내면에 깃든 힘의 개화가 바로

시대 창조하는 흐름 넓히는 원천

유엔의 사명은 ‘약자 편에 서는’ 일

또 헨더슨 박사가 일어난 이유는 뉴욕에서 심각해진 대기오염 때문에 어린 딸의 피부가 그을어 더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 원점에는 마음에 받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세계에 없으면 안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낼 수 없었습니다. 마타이 박사가 ‘나무심기는 빈곤과 굶주림의 순환을 끊고 평화를 키운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나무심기운동을 넓히고 또 헨더슨 박사가 ‘깨끗한 공기를 아이들을 위해 되찾고 싶다’며 동료와 힘을 합쳐 행동을 일으켰듯이 자신들이 바라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도전을 소개하는 ‘희망의 씨앗’전 마지막 패널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 한그루를 배경으로 ‘공백’이 펼쳐집니다.

그 ‘공백’은 한사람 한사람이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희망의 씨앗’으로 전 세계에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활동

때마침 유엔은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사업(UN75)’ 활동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은 인류가 맞닥뜨린 많은 과제를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까’에 관한 대화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히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기 십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이나 공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험을 배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을 향한 글로벌 비전을 세워 실현하기 위한 협동적인 행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유엔은 대화의 중심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모든 사람이 심각한 위협이나 과제를 마주하면서 느낀 마음을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도전을 낳는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생각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앞으로 구축하고 싶은 세계에 관한 비전을 실감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한 공동작업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져야 온난화 방지 활동에 기세를 더해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로 나아가는 확실한 궤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엔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 정상회의

셋째 기동은 SDGs의 달성 기한인 2030년을 향해 유엔이 정한 ‘행동 10년’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행동 10년’이라고 할 만한 운동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유엔은 지난해 9월, 청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국 대표가 참석할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회의로 유엔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 ① 140여개국·지역에서 모인 청년들이 각국 대표가 아니라 같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점입니다.
- ② 유엔 관계자가 아닌 청년들이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 ③ 발표자가 차례로 연설하는 유엔의 기존 회의와 다르게 활발하게 논의를 펼친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키노트 리스너(기조 경청자)’를 자칭한 점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찍이 저는 2006년에 발표한 유엔제언에서 ‘해마다 유엔총회 개회 전에 전 세계 청년대표를 초대한 ‘프리미팅(사전 모임)’을 열어 청년들의 의견에 각국 대표가 귀를 기울일 기회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기후정상회의가 그 제안을 실행하는 진보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국제기후파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도 온난화를 방지할 긴급조치를 요구하는 행진을 185개국에서 열어 760여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의 발단은 스웨덴 고등학생인 그레타 툰베리 씨가 기후변화의 대책강화를 주장하고자 2년 전 여름에 등교거부로 시작한 파업입니다.

그 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순식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파리협정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NGO ‘미션 2020’의 의장을 맡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힘쓴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기후변화협약 전 사무총장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청년들은 과학을 이해하고,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은 변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온난화 방지에 관한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분노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이러한 ‘분노’에 ‘낙관주의’를 결부하면 더 큰 힘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참가학회 총본부를 방문한 피게레스 전 사무총장은 ‘세이코신문’ 기고에서도 불가능해 보인 파리협정을 합의로 이끈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낙관주의 없이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청년들의 현실변혁에 대한 의지가 불굴의 낙관주의와 맞물렸을 때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청년의 행동은 많은 사람이나 단체의 행동을 가속화하는 파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대학들의 움직임입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기후변화 연구에 힘써 대학과 지역에 지속가능성 교육을 강화하자는 선언에 찬동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많은 고등교육기관

의 네트워크가 여기에 동참하여 대학 등 약 1만 6000여곳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각국 지자체가 펼치는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의욕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연대가 138개국 1만여 지자체로 넓혀졌습니다.

청년기후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학생인 브루노 로드리게스 씨는 “기후변화에 관한 변화를 일으키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집단 의식을 구축했다.”고 말했는데 실로 젊은 세대의 숨결이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페체이 박사의 인생 전환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로마클럽 설립자 아우렐리오 페체이 박사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도리를 적용하려면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도리’라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로마클럽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형성한 계기가 된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경종을 약 반세기 전에 울린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심 역할을 한 페체이 박사는 특히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행동조치에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박사와는 1975년에 만난 뒤로 5차례에 걸쳐 대담했는데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는 일은 선택사항도 차선책도 아니다, 정말로 세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거로 삼아야 하는 ‘도리’이자 빼놓을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이 박사의 신념이었습니다.

기업 경영자인 박사가 ‘보상이 확실하고 자극이 풍부하다’고 느낀 사업에서 벗어나 로마클럽을 설립하겠다고 결의한 이유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해마다 다음과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이나 계획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도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점차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포함된 거시적 차원인 세계의 지구적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로마클럽은 페체이 박사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2년 가까이 성과가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맞닥뜨린 과제를 열심히 말해도 ‘마치 다른 행성의 문제처럼 생각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로마클럽 활동의 의의에 상찬을 보낸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였다고 합니다.

로마클럽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성장의 한계’²를 발간한 때는 활동을 시작하고 4년이 지난 1972년이었습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넓혀졌지만 내용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결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하고 진지하게 첫발을 내딛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인간에게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GI가 발족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5년 5월에 저는 페체이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성장의 한계’²가 발간된 이듬해(1973년 5월), 런던에서 역사가 아널드. J. 토인비 박사와 2년에 걸쳐 40시간에 이르는 대화를 마쳤을 때, ‘이런 대화를 자신의 우인과도 이어가기 바란다’며 추천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페체이 박사였습니다.

국적은 ‘세계’

저는 다시 유럽을 방문할 때 만나려고 페체이 박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꿈에서 제1회 ‘세계 평화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975년 1월 26일, SGI 발족 무대가 된 ‘세계평화회의’에서 저는 방명록의 국적 칸에 ‘세계’라고 썼습니다.

의식적으로 세계를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정하고 각국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인’이라는 자각의 중요성을 외친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세계 어느 나라 민중도 절대로 희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구민주주의’를 제창한 도다 제2대 회장의 정신을 ‘세계’라는 두 글자에 응축하여 SGI의 원점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뒤에 페체이 박사와 만났을 때, 박사는 제가 집필한 소설 ‘인간혁명’ 영문판을 손에 들고 있었습

² 성장의 한계

로마클럽이 1972년에 발표한 보고서로 1960년대처럼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면 식량부족과 자원고갈, 환경오염이 늘어 100년 이내에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이른다고 장래를 예측했다. 이 예측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앞두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

니다.

선사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시작한 창가학회의 역사를 쓴 소설로 우리가 추진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내발적인 힘의 개화를 통해 시대변혁을 목표로 하는 ‘인간혁명’ 운동에 박사가 깊은 공감을 보내주어 무엇보다 소중한 지지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박사는 저와 나눈 대담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에게는 지금까지 잠든 채 방치되어, 악화 일로에 있는 인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본디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세계의 많은 청년이 연대를 맺고 소리 높여 기후변화에 용감히 맞서려고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박사가 희망을 의탁한 힘이 크게 꽃피우기 시작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의 한계’ 발간 당시에 쟁점이 된 공해나 자원문제처럼 국소적 대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의 원인은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면에 미치기에 상황을 타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로마클럽 공동회장을 맡은 산드린 디슨 테크레브 박사가 지난해 10월 유럽의회에서 소개한 ‘지구 비상사태계획’에서 긴급한 과제만 해도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대를 비롯한 순환형 경제이행에 관한 과제 등 10가지 항목을 거론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조기 발효하고 피폭지에서 ‘민중포럼’ 개최

그러나 기후변화를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응해야 할 분야나 장소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 한사람 한사람에게 내재하는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넓혀진다는 사실입니다.

SGI의 대표도 참석한 청년기후정상회의에서는 그 무대의 확대를 말해주는 분과회가 열렸습니다. 자연보호를 비롯한 창업과 금융, 기술, 예술, 스포츠, 패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동영상 송신 등에 관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기후정상회의 직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의 정치선언 내용을 주목합니다.

2030년까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과 수행 10년’이라고 규정한 뒤, 활동을 추진하면서 영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청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선언을 듣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이 ‘행동 10년’을 세워 세계 규모 행동과 지역 차원 행동을 비롯해 청년들을 포함한 민중 차원 행동을 넓히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이 정한 ‘행동 10년’에서 민중 차원 대처 중 하나로 청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제창합니다.

기후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레타 툰베리 씨도 지난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30년까지 10년간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변혁은 모두 민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도 청년기후정상회의를 해마다 개최해 유엔의 새로운 모습을 정착시키고 유엔과 시민사회가 연대를 맺어 ‘기후변화에 맞서는 청년행동 10년’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야 합니다.

또 그 방향을 결정짓는 초석으로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호’³를 계승하는 형태로 기후변화에 관한 의사결정에 청년의 참여를 큰 흐름으로 만들어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9월에는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 세계 청년들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초청하여 ‘청년행동 10년’을 시작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의 새로운 마디를 장식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청년부가 2014년에 추진한 ‘소카글로벌액션’을 발전시켜 올해 새롭게 ‘소카글로벌액션 2030’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한사람 한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인 ‘나의 도전 10가지’를

³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폭력적인 과격주의에 대항하는 활동에서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으로 2015년 12월에 개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청년을 영속적인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의사결정에 청년 대표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는 일 등을 유엔 가맹국에 요구했다.

비롯해 풀뿌리 행동 연대를 넓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비롯해 SDGs를 달성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연대가 있는 한 넘지 못할 벽은 결코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제안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5년이 되는올해 안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어떻게든 발효시켜 ‘핵시대와의 결별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17년 7월에 채택한 뒤, 지금까지 80개국이 서명하고 35개국이 비준을 마쳤습니다. 조약 발효에 필요한 ‘50개국의 비준’을 조기에 실현하려면 참여국 확대에 속도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군축 초석이 된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⁴이 효력을 잃는 등 핵군비 확산 경쟁이 다시 격화되려고 합니다.

레나타 드완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이 ‘핵무기 사용 위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고 경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기에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로 썩기를 확실히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국제규범

현재까지 핵보유국이나 핵의존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발효를 통해 수립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에는 매우 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무엇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를 비롯해 핵개발이나 핵실험의 피해를 입은 세계의 피폭자가 품어온 ‘자신들이 겪은 괴로움을 두번 다시 누구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⁴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조약으로 1987년 12월에 조인했다. 사정거리 500~5500킬로미터 중거리핵전력을 전면 금지하고 1991년 5월에 대상무기를 전면 폐기했지만, 최근 INF 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2월 조약 파기를 통보했다. 러시아도 조약의무의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지난해 8월에 조약이 실효되었다.

게다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핵무기 완전 폐기는 ‘유엔의 DNA’라고 강조했듯이 1946년에 처음 개최한 유엔총회 결의안 1호에 핵무기 폐기를 내건 이후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몇번이나 나오다가 마침내 핵무기금지조약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과 비준의 확대는 50년 전(1970년 3월)에 발효한 NPT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NPT 발효 당시 서명국은 97개국으로 비준국은 47개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를 통해 ‘핵무기 확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범의식이 점차 정착되면서 핵무기 보유를 검토하던 나라들이 대부분 비핵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한때는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했지만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NPT에 동참한 나라도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방지도 NPT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이상(理想)’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약을 발효하고 비준국이 확대됨으로써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을 크게 규정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첫 단계에서는 체약국이 충분하지 않아도 조약 발효는 세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의의를 논한 흥미로운 고찰이 있습니다.

1997년에 핵무기금지조약에 앞서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초안인 핵무기조약의 기틀을 잡은 메라브 다탄 박사와 위르겐 세프란 박사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 영역의 구분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모델로 삼은 핵무기조약은 이상을 구체화한 것이고 NPT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 이상과 현실을 모두 체현했다. 핵무기 보유 국가의 서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실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약에 대한 반대나 군축에 대한 저항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규범의 가치와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강조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중요한 점은 조약 발효로 수립되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느 국가도 뒤흔들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ICAN의 국제운영단체 중 하나인 ‘노르웨이 피플스에이드(NPA, Norwegian People’s Ai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국가는 135개국에 이릅니다.

게다가 각국 지자체들도 조약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한 ‘ICAN시티즈 어필’에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핵의존국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스위스의 지사

체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는 핵보유국의 수도인 워싱턴D.C와 파리를 비롯해 핵의존국의 수도인 베를린과 오슬로, 캔버라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모든 나라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하는 ‘피폭자국제서명’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이 주장해 4년 전에 시작한 활동으로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105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학회 평화위원회도 운영단체로서 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 세계 민중의 뜻을 더욱 강력하게 결집하여 ‘핵무기 금지의 규범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민중에게도 참혹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래서 핵무기금지조약을 발효한 뒤 제1회 체약국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세계 피폭자를 비롯해 조약을 지지하는 각국 지자체나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택하는 민중포럼’을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연장 기반으로 핵보유 5개국에서 핵군축조약을

핵운용에 시도입과 사이버공격 금지가 급선무

인권법의 핵심 이루는 ‘생명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택하는 민중포럼’의 개최를 제안한 이유는 ‘어느 나라 민중에게도 핵무기의 참혹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핵무기 금지를 민중 스스로 ‘국제적인 인류의 규범’으로 뿌리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둘러싸고 더욱 깊이 있는 국제적 논의를 벌이기 위해 거듭 노력하고,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중간 역할을 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핵무기금지조약의 교섭을 시작하는 돌파구를 연 계기는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개최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였습니다.

국제회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관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①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핵폭발로 일어난 직접적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어렵다.
- ②핵폭발 영향은 국경이 없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 ③핵폭발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회와 경제개발을 막고 환경도 악화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이처럼 ‘핵무기로 지키려는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핵무기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쪽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핵무기금지조약의 교섭을 시작하는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한 뒤 2018년 10월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생명권의 존중과 공존할 수 없다’고 명기한 일반적 의견을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생명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서 긴급사태라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일탈할 수 없는 권리’로서 자리매김해 국제인권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제인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권리와는 관계에서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중대한 문제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의의는 매우 큼니다.

제 스승 도다 제2대 회장이 1957년 9월에 발표한 ‘원수폭금지선언’에서 무엇보다 초점을 맞춘 것도 세계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성이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제1회 체약국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택하는 민중포럼’을 열어 ‘생명권’에 특히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강조하는 논의를 깊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또 민중포럼을 통해 핵무기를 금지했을 때 만들고 싶은 세계의 모습에 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에서 지금까지 핵문제와 결부된 적 없는 성별의 관점이 포함된 계기도 오랫동안 간과한 피해 실상을 한 여성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에 개최한 제3회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메리 올슨 씨가 핵무기 사용에 따른 방사선의 유해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 일을 계기로 논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핵무기금지조약 전문에 이러한 구절을 명기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평등하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고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 여성의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은 핵무기 금지로 지향해야 할 세계 비전의 윤곽을 성별의 관점에서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가학회가 오랫동안 발간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증언집에도 여성의 체험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4년 전에 발간한 ‘히로시마 여성들’에는 여성 14명의 증언을 통해 피폭에 따른 후유증 등의 불안에 떨면서 결혼과 출산을 비롯해 여성이기에 받은 편견과 고통이 씩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자신들이 겪은 비극을 누구도 겪게 하지 않겠다’는 피폭자로서 겪은 뼈저린 체험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제가 ‘웃는 얼굴이 빛나는 미래(내일)로’이듯 ‘어머니와 자녀가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함께 만들자’는 다짐이 맥동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보편성을 높이려면 ‘인간이 겪은 체험’에 근거를 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화와 군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성별과 인권문제 더 나아가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나 처지의 차이를 뛰어넘은 민중의 지지가 많이 모아져야 비로소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적인 인류의 규범’으로서 힘이 실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PT 재검토회의에서 실현해야 할 합의

다음 둘째, 핵군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5월에 걸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하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다국간 핵군축 교섭 개시’에 대한 합의와 ‘AI 등 신기술과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협의’에 관한 합의를 최종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첫번째 합의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을 확보한 다음, 다국간 핵군축 교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ew START는 양국의 전략핵탄두를 1550발까지 감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배치 수를 700기까지 감축하는 방안인데 내년 2월이 기한입니다.

5년간 연장할 수 있는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INF 폐기조약에 이어 New START까지 잃는다면 대략 반세기 만에 양국이 핵전력 운용에서 '상호 제약을 일체 받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공백상태 때문에 발생할 우려는 핵군비확산 경쟁의 재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형 핵탄두나 초음속무기 개발이 가속화되면 국지적 공격에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일이 현실감을 떨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New START를 5년 연장해야 하고 NPT 재검토회의에서 논의해 핵무기 근대화를 자발적으로 정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재검토회의까지 다국간 핵군축 교섭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50년에 걸친 NPT 역사에서 핵군축의 틀을 세운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2개국 뿐이고, 다국간의 틀을 바탕으로 한 핵군축은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NPT는 모든 핵보유국이 핵군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완수를 서약하는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회의에서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여러 접근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가지 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New START의 5년 연장'을 토대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새로운 핵군축조약을 목표로, 먼저 핵군축 검증체제에 관한 대화에 착수하자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실시해 검증한 경험이나 5년 전부터 많은 나라가 참여해 지속적으로 실시한 '핵군축 검증 국제파트너십(IPNDV)'에서 논의한 내용도 근거로 삼아 5개국이 핵군축 실행 과제를 논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화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핵무기 감축 수에 관한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통의 안전보장 정신을 돌아보다

다국간 핵군축 기운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열쇠는 냉전종결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준 '공통의 안전보장' 정신을 돌이켜보는 일입니다.

1982년 6월에 실시한 제2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 맞추어 팔메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팔메위원회가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타국의 희생으로 안전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호협력으로만 안전할 수 있

습니다.”

저도 그때 제2차 군축특별총회에 보낸 제언에서 ‘방대한 핵전력이 대치하는 이상 아무리 군사력을 증강해도 도저히 진정한 평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만큼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해인 1981년,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대결자세를 명확히 하고 유럽에 한정된 핵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심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힘과 현실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이었다. 내가 바란 것은 힘을 이용한 평화이지 종이 꼬가리를 이용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각국의 시민이 펼친 반핵운동이 거세져 핵무기 사용이 불러일으킬 파괴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핵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또 핵무기로 대립하는 소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생각하다가 체르넨코 소련 서기장에게 편지를 보낸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체르넨코 서기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극비리에 직접 소통하는 편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배우시절에 익힌 감정이입 기술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어서 소련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미국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듯한데 나는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상대국이 느끼는 불안이 자국이 느끼는 불안처럼 그대로 거울에 비친다고 실감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대화를 모색하던 중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마음을 터놓고 계속 대화한 결과 두 정상이 공동성명으로 ‘핵전쟁에 승자는 없고 핵전쟁은 결코 벌이면 안 된다’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공통의 안전보장’에 통하는 사고방식이 맥동하고, 그것이 1987년 12월 INF 폐기조약 체결로 이어져 냉전을 종결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세계에는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신냉전’이라고까지 부르는 상황에 맞닥뜨린 지금이야말로 ‘공통의 안전보장’ 정신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핵전쟁에 승자는 없고 핵전쟁은 결코 벌이면 안 된다’는 선언을 NPT 체약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번 재검토회의의 최종문서에 명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유엔이 2018년 5월에 발표한 군축어젠다에서도 ‘인류를 구하기 위한 군축’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내세웠습니다. 작성에 참여한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대표는 발표 이튿날 실시한 연설에서 군축과 안전보장의 관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축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원동력이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군축은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단입니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핵군축 교섭을 추진해 다른 국가들이 느낀 위협이나 불안을 없애므로써 자국이 타국에 느낀 위협이나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NPT 제6조가 추구한 핵군축의 성실한 이행을 이렇게 서로 승자가 되는 ‘원원 관계’를 기반으로 지금이야말로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발달이 무기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 NPT 재검토회의에서 합의해야 할 목표로 제가 특히 바라는 점은 ‘핵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핵무기 운용에 AI를 도입하는’ 위험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깊이 다져 금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이나 AI에 관한 신기술은 사회에 많은 이익을 불러오는 한편 그것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러한 신기술에 동반되는 문제를 둘러싼 회의를 베를린에서 개최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가들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의 정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킬러로봇을 통칭으로 부르는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 문제와 더불어 신기술 발달이 핵무기 등 많은 무기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의 외무장관이 정치선언으로 ‘기술적으로 진화한 군사능력이 전쟁의 성격을 바꾸고 세계 안전보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공통의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무기에 안전보장을 의존하는 나라들도 우려를 나타낼 만큼 신기술의 발달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더욱 긴급해지는 핵무기와 신기술을 둘러싼 토의를 NPT의 틀에 맞춰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1995년에 NPT의 무기한 연장이 정해졌을 때 조약 재검토회의에서는 과거 합의를 달성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뿐 아니라 장래 발전을 계획해야 할 분야와 그것을 위한 수단을 특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핵무기와 신기술 문제는 긴급성과 막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입니다.

사이버공격은 핵무기의 지휘 통제뿐 아니라 조기경계, 통신, 운반 등 여러 복잡한 시스템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시스템에 사이버공격이 실행되면 단순한 부정침입에서 끝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핵무기 발사나 폭발을 일으키는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관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엔헌장을 포함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합의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가가 법률의 기준 안에서 악의적 또는 적대적인 행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의미에서도 ‘핵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금지를 NPT의 틀 안에서 조속히 확립하여 핵위험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불안과 시의심을 심화시킬 위험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에 AI를 도입하는 일’도 많은 위험을 끌어들이기도 모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보유국이 AI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피로나 공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심해나 극지방 같은 혹독한 생존환경과 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무인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핵무기 운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늘어나 오히려 핵사용의 위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핵억지론의 기반을 만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한 심리학적인 인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I가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상황판단의 과정이 블랙박스처럼 가동되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더욱 더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불안과 시의심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냉전 중,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전략시스템과 행동을 연구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반드시 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방관계 대표들이 자주 만났다.”

심리학적 인식이라고 해도 거듭 직접 만나는 실제 체험이 따랐기에 비로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냉전시대에 잘못된 정보나 장치의 오작동으로 다른 나라가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경보가 울리는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 것은 감시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정세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건전한 의심을 일으켜 핵공격으로 대항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진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공격으로 ‘해킹’과 ‘악성코드’의 위협에도 놓여 있어 시도입이 진행되면 잘못된 정보뿐 아니라 거짓 정보에 대한 취약성도 더해질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 향해

회복탄력성 강화 추진

물론 SI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핵무기 발사의 최종판단이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핵보유국 사이에 SI를 도입하려는 경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SI도입은 자국이 우위에 설 수 있게 ‘군사행동의 속도’를 높일지는 모르지만, 1962년 쿠바위기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마주한 것 같은 딜레마를 조금의 유예도 주지 않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 세계를 뒤흔든 위기가 준 교훈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보유국은 상대국에 굴욕적인 퇴각이나, 핵전쟁을 강요하는 대결을 피해야 합니다.”

그 딜레마가 얼마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일인지 깊은 회한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당시 두 정상에게는 심사숙고할 ‘13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하듯 속도전이 진행되면 상대를 앞질러야 한다는 압박이 한층 더 강해져 충분히 논의한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그만큼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점을 SIPRI의 보고서에서도 ‘더 빠르고, 더 영리하고, 더 정확하고, 더 다목적 무기를 탐구하는 일은 불안정한 군비확산 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와 AI의 관계는 선제공격을 재촉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핵전쟁을 멈추는 힘은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NPT 전문에 새겨진 것처럼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조약의 일관된 정신일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체약국이 공통 토대로 삼으면서 앞으로 사이버공격이나 시도입을 둘러싼 협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에 계속 의존하는 정책의 의미를 되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건수가 10년 동안 5배로 증가

셋째, 기후변화와 방재에 관해 제안합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노력이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의 감축뿐만이 아닙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COP25에서도 이 2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토의했습니다.

COP25에 즈음해 NGO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건수가 과거 10년간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지진 등의 재해나 분쟁보다도 기후변화 때문에 피난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기후변화와 방재’에 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유엔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를 제창하고자 합니다.

유엔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2007년부터 각국의 정부대표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한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2015년에는 센다이에서 제3차 ‘유엔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로 대신 개최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해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182개국에서 4000명이 참석해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는 3년마다 개최할 예정인 이 회의를 2022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방지와 복구작업을 집중적으로 토의하면 어떨까요.

5년 전에 개최한 유엔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⁵는 재해 이재민을 2030년까지 대폭적으로 줄이자는 등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각국의 경험을 살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일찍이 인프라 정비에 관해서는 인도가 주장하여 ‘재해에 강한 인프라를 위한 연합’을 지난해 9월에 발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을 둔 지진 등의 재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끼친 영향에도 강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틀 안에서 기술지원이나 능력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연계를 추진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일본도 이 연합에 참여해 인도를 비롯한 다른 가맹국과 협력하면서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에서 이 분야의 국제적인 지침을 정리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에서 중심의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와 방재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다루어 그 연계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UNDRR이 ‘재해에 강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운동에 전 세계 430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몽골이나 방글라데시와 같이 모든 지자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올해로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는 형태로 지자체 간의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는 해안선에서 100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어 그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은 인구가 해안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해안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와 방재’라는 공동과제를 둘러싸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워 재해 위험을 줄이는 상승효과를 아시아 전체로 확산해야 합니다.

올해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를 호주에서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지자체 간의 연

⁵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

2015년 3월, 센다이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한 국제적인 지침이다. 2030년까지 달성할 방재목표로 이재민 수의 감소와 주요 인프라의 손해를 감소하는 등 7가지 항목을 내걸었다. 그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시해야 할 행동으로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효과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준비 강화와 ‘더 나은 부흥’ 등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계에 관해 깊이 논의하여 2022년에 개최하는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에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상황

덧붙여 다음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를 앞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의 촉진을 내걸고 개최한 회의에는 발표자의 절반과 참석자의 40퍼센트를 여성이 차지한 외에도 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SDGs의 추진자로서 회의에 참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드워드 은도푸 씨는 재해 발생 시 사회적 포용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전 세계 인구의 15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소수집단이지만 그 존재는 계속 잊혀져 왔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장애인을 물리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태도가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영향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두살 무렵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은 은도푸 씨는 재해가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방재와 부흥을 뒷받침하는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 점을 제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생’의 유대를 거둬 키운 토양이 있어야만 재해가 발생할 때부터 복구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네바회의에서 재해와 성별을 둘러싼 토의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놓인 상황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차별의식 등으로 당연한 듯 보이는 일이 많기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소외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대피해야 할 때, 여성은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성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아이들과 고령자 그리고 환자인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에 집에서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지원하고 큰 힘이 된 존재는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교육을 위한 국제연대세’ 신설해 인도적 위기 놓인 어린이 지원

낮에 뜬 별들의 비유

이 점에 관해 유엔 여성기구(UN Women)도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재해 직후부터 발휘되는 리더십이나 지역에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방재에 여성들이 펼치는 실질적인 공헌과 더불어 잠재적인 공헌은 가능성이 큰 사회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간과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대승불교 경전에 나오는 ‘낮에 뜬 별들’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하늘에는 늘 많은 별이 있고 각기 빛을 내뿜고 있지만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별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지진 등 재해와 더불어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때도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생명선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양성평등의 지침을 명확히 정한 ‘베이징행동강령’을 채택한 지 25주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의 달성은 인권문제이자 사회 정의를 위한 조건이기에 여성만의 문제로 따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양성평등 정신은 방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재해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든 인프라 정비 등과 같은 하드면에서 하는 방재만으로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은 본디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존재를 지역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구축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SGI도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FBO)로서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과 복구를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2017년 멕시코에서 개최한 방재 글로벌 플랫폼회의에서는 ‘FBO에 따른 지역주도 방재 - 샌다이방재시스템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또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단체의 FBO와 협력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지난해 개최한 제네바회의에서도 잇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18년 3월에 다른 FBO 단체 4곳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FBO연합(APFC)’을 결성하고 그해 7월에 몽골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방재 각료회의에 공동성명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SGI를 포함한 단체 5곳이 공통으로 정한 결의를 담아 이렇게 썼습니다.

“FBO 사명의 근간은 사회적 약자를 낳는 근본원인에 대처하는 의지와 사회의 구석에 몰린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방재와 회복탄력성 구축 그리고 인도적 행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다른 FBO와 공유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포용이라는 비전을 내 걸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분쟁이나 재해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다

끝으로 넷째, 분쟁이나 재해 등의 영향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어린이를 지원할 방법을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차대를 짊어질 아이들의 인권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에 발효 30주년을 맞는 아동권리협약은 유엔 가맹국보다 많은 196개국·지역이 참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권조약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권리 보장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 조약을 발효할 당시에는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를 얻지 못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약 20퍼센트였는데 지금은 10퍼센트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척이 있는 반면 분쟁이나 재해 영향을 받은 나라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 예멘에서는 어린이 240만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또 학교시설도 공격을 받아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군사기지 또는 피난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가 이어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가정이 가난이나 피난생활에 쫓겨 아이들의 건강이 위태롭고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분쟁이나 재해의 영향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1억400만명이나 되는데 인도적 지원금 중에서 교육에 분배되는 금액은 2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이나 의약품 등 물자지원과 비교해 ‘인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사태가 일어난 직후뿐 아니라 복구가 시작된 이후에도 뒤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유엔 아동기금(Unicef)이 강조하듯 아이들에게 학교의 존재는 일상을 되돌리기 위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분쟁이나 재해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4년 전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가 유엔 아동기금이 주관하는 교육취약 아동을 위한 비영리기구인 ‘ECW(Education Cannot Wait)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긴급 시에 사용할, 교육에 특화된 첫 기금으로, 지금까지 인도적 위기에 둘러싸인 어린이와 청소년 190여만명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긴급 시에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은 인도적 위기가 길어질 경우 교육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안심과 희망을 되찾고 장래 희망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더없이 소중한 기금일 뿐 아니라 지역이나 사회에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원천입니다.

야스민 세리프 ECW기금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민과 난민들이 읽고 쓰기를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해 교사나 변호사,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평화와 관용 그리고 상호존중을 촉진하는 열쇠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경우 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37퍼센트나 줄어듭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지 않는다

유엔의 SDGs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도 분쟁이나 재해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방치되는 일이 결코 없으면 안 됩니다.

ECW기금을 설립한 2016년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인도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 7500만명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데 해마다 85억 달러가 필요하고 한 사람 당 연간 113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그 대상 인원은 1억 400만명에 이르러 필요한 금액도 점점 늘어나지만 전 세계가 1년간 사용하는 군사비용인 1조 8220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자금을 국제적인 지원 등으로 확보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어린이가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심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하는 도전의 일환으로 ECW기금의 자금기반을 강화하여 긴급 시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일찍이 저는 2009년에 발표한 제언에서 유엔이 당시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뒷받침하려면 국제연대세 등 혁신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창했습니다.

그러한 체제는 SDGs를 추진하는 데 더욱 필요하기에 ‘교육을 위한 국제연대세’를 신설하고 더불어 자금기반을 강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대세로는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도입한 항공권연대기금⁶이 있는데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또 5년 전부터는 유엔이 발달장애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유닛라이프(Unit Life)’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에 혁신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토의하는 리딩그룹 의장국을 역임하면서 7월에 개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제연대세를 포함한 혁신적인 자금조달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유엔 아동기금과 연계하여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중동 시리아의 초등학생 약 10만명에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어린이 약 6만 2000명에게 학용품과 책가방을 지급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 70곳을 세워 어린이 약 5만명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교육 분야 지원에서 실적이 많은 일본이 ‘교육을 위한 국제연대세’를 비롯해 여러 계획을 검토하는 논의를 이끌면서 ECW기금의 기반을 강화할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⁶ 항공권연대기금

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결핵, 말라리아의 치료보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제선 항공권 등에 일정액(이코노미석에 1000원 정도)을 과세하는 제도다. 2006년에 프랑스가 처음 도입하여 UNITAID에서는 그 자금을 활용해 약품의 대량구입과 교환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아 치료보급을 촉진했다.

피난지에서 교육 혜택을 받는 일이 어린이와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희망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소개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두 아이를 키운 한 여성은 정세 불안이 계속되자 이웃나라 코스타리카로 피난을 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피난을 가기로 참으로 괴로운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위험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재학증명서를 받으러 가기도 위험한 상황에서 작은 가방 하나 둘러메고 간신히 피난해야 했기에 아이들이 피난지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마음을 졸였는데 코스타리카는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피난민이 있는 코스타리카 북부지역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적인 서류가 없어도 입학할 수 있고, 피난 때문에 학습이 뒤쳐진 아이들을 위해 복습 등의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아이도 교육받을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공부할 수 있어 지금 가장 기쁩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열네 살배기 오빠는 열살 먹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학교를 집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인도적 위기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1억40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에는 아이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가 있고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도 교육받을 기회가 똑같이 확보되면 틀림없이 살아가는 희망을 되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램프 문양에 담긴 마음

우리 SGI도 사회적인 활동 3가지로 평화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 힘을 쏟아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 활동을 세계 192개국·지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자인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1930년 11월 18일)에 발간한 ‘참가교육학체계’ 판권에 그 정신의 원류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습니다.

램프에 불이 환하게 켜진 모양으로 그 문양은 케이스와 책 표지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큰 혼란이나 위협에 뒤덮이면 그 폭풍우에 가차없이 떠내려가 거센 파도에 번롱당하는 대상이

특히 늘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음 아파한 마키구치 회장은 교육의 제일선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밝히는 일에 최대한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여는 힘을 기르는 인간교육의 방법을 연구한 결정체가 바로 ‘창가교육학체계’라는 위대한 저서입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30대에 러일전쟁이 한창이라 일본에서 뒤쳐진 여성교육을 보급하고자 힘을 쏟은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거나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 수업료 전액면제와 반액면제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40대에는 가난한 가정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맡아 병에 걸린 아이들 집으로 병문안을 가서 직접 돌봐주고 먹을 것이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마키구치 회장 자신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 간토대지진(1923년) 때문에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학용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찍이 교장을 역임한 초등학교의 제자들이 걱정되어 그 지역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자인 도다 회장도 전시체제인 1940년 이후에 아이들을 위해 35권에 이르는 학습지를 발간했습니다.

군부정부의 사상통제가 강해질 때 마키구치 회장과 함께 투옥된 도다 회장은 마키구치 회장이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뒤에도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년에 걸친 옥중생활에도 굴하지 않고 출옥한 다음달 전쟁이 끝나자마자 즉시 시작한 일도 아이들을 위한 통신교육이었습니다. 전쟁 뒤 혼란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아 교육 기회가 끊기지 않도록 길을 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회장의 가슴속에는 ‘어떤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빛을 계속 밝혀주겠다’는 신념이 맥동하였습니다. 창가학회를 창립한 원점이기도 한 ‘창가교육학체계’의 판권에 그려진 램프 등에도 그러한 두 선사의 서원과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램프의 적절한 표현처럼 교육의 빛은 누군가의 뒷받침이 없으면 꺼지고 맙니다. 계속 정열을 쏟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사회가 있어야 비로소 빛납니다.

저도 선사의 그러한 마음을 계승해 도쿄와 간사이 소카학원, 소카대학교를 비롯해 미국소카대학교, 브라질소카학원 등 교육기관을 창립하고 각국의 교육자와 거듭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존엄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반세기 넘게 도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SGI는 ‘교육을 위한 사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의식계발에 힘쓰는 한편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과제에 힘쓰는 연대를 넓히고자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임파워먼트’를 힘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유엔 홍보센터 홈페이지
2. ‘인간의 대지’ 생텍쥐페리 저, 김윤진 옮김, 시공사
3.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삼문명사
4.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권’ 제삼문명사
5.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브히지트 바세르지·에스테르 뒤플로 저, 이순희 옮김, 생각연구소
6. ‘붓다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7. ‘새로운 지구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우시오출판사
8.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
9. ‘<평화의 문화>가 빛나는 세기를 향해!’(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14권 수록), 세이쿄신문사
10. ‘석존의 생애’ 나카무라 하지메 저, 평범사
11. ‘야스퍼스의 불교관’ 카를 야스퍼스 저, 정병조 옮김, 한국학술정보
12.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화광신문사
13. ‘미래를 위한 100쪽’ 아우렐리오 페체이 저, 오키타 사부로 번역 감수, 요미우리신문사
14. ‘인류의 사명’ 아우렐리오 페체이 저, 오키타 사부로 번역 감수, 다이아몬드사
15. ‘21세기에의 경종’ 일조각
16. ‘공통의 안전보장’ 모리 하루키 번역 감수, 일본방송출판협회
17. ‘레이건 회고록: 구두장수 아들의 꿈’ 로널드 레이건 저, 고명식 옮김, 문학사상사
18. IDN-InDepthNews 2019년 3월 17일 송신
19. ‘케네디 대통령 연설집’ 하세가와 기요시 옮김, 남운당
20. 유엔 난민기구(UNHCR) 일본대표부 홈페이지